

사·부·대·중

절집의 경제구조

사찰의 소임을 맡아 살다보면 경제의 흐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법회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면 신도가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길을 끊으면 영락없이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단가 아니면 실직을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석은 하지만 그 동안 꾸준히 내던 기도비를 내지 못하는 신도들도 역시 같은 경우에 속한다.



홍승 스님 대구 부도암

입에서는 요즘 들어 부쩍 앞으로의 불교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많다. 시주에만 의존해서 살아왔던 절집안의 경제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하지만 의견이 다양한 만큼 논란의 소지도 많다.

이럴 때 항상 제기되는 의견 중의 하나가, 이제는 시주에 의하지 말고 절집안만의 경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익사업이 필만한 것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대목에 와서는 다들 시원스런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경제관념이 약한 스님들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어찌 됐든 시대가 시대나 만큼 어느 정도의 부차용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의 살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런 고민이 공적인 마음에서인가, 사적인 마음에서인가에 따라서 그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어찌 됐든 사부대중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정월이 되면 각 사찰에서는 정초산림기도나 입춘기도나 방생이나 각종 행사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신도들로서는 각종 기도가 많은 만큼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이면 절에 시주하는 돈의 액수가 제법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제사정으로는 웬만한 마음먹기나 신심으로는 선뜻 기도에 동참하기가 부담이 되기도 할 것이다. 올해 정초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숫자만 보아도 심각할 정도로 참석률이 저조하다. 예전의 40%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으니 말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스님들은 마음이 착잡하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스님들의 모

화엄광장

출가자-재가자-이웃 종교인 한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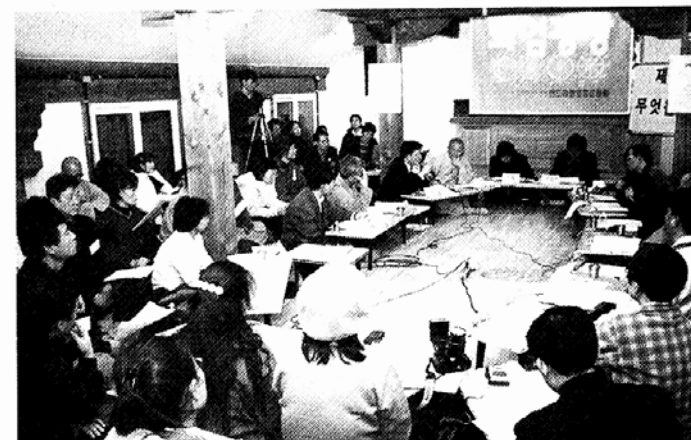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난상토론

출가자와 재가자, 이웃 종교인들이 모여서 수행과 삶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화엄광장'이 처음으로 열렸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주최해 9일 오후 7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제1회 화엄광장은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난상토론을 이어갈 정도로 열기로 가득했다.

스님, 학자, 시민운동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9명의 대표토론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경험을 발표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무차(無遮)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토론문화를 선보였다.

토론 부재의 사회에서 불교적 토론문화의 새 장을 연 이날 화엄광장은 실상사주지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이 발제자로 나서고 정태용 화엄광장 기획단장(전 전교조 위원장)이 좌장으로, 전채성 한국백일리성전협회 회장이 사회자로 참석했으며 대표토론에 오성 스님, 성태용 교수(건국대·철학), 황선진(생



7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열린 제1회 '화엄광장' 스님, 재가자, 학생, 귀농자, 수녀님, 외국인 신부님 등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모여 깨달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자비외집 등 다양한 곳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께서 환자의 고통을 잊어주시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지원경(경북불원 자원봉사단장)씨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무주상 보시행을 통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주영(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씨는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과 계·정·혜 3학을 통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총체적인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경험에서 나온 수행론을 폈다.

계·정·혜 기초한 수행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삶은 깨달음을 향한 방편만이 아니라, 깨달음의 삶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깨달음이란 또 하나의 진리 세계를 상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무명에 의해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

이도훈(한양대 강사)씨는 "존재의 실상을 여실히 꿰뚫어보는 깨달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처님이 깨달은 '진정한 깨달음'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도법스님은 "전도봉상을 버리는 순간 나타나는 구경열반은 불생불멸의 연기무아의 삶, 영원과 무한의 자유자재의 삶이 이루어짐을 뜻한다"며, 보현행원을 한 예로 들었다. 도법스님은 '보현행원'은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과정과 방편이자 깨달은 자의 조근조근은 무연(無緣)자비라면서, 완성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서의 보살행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00여명 형식 탈피 자유발언 불교적 토론문화 새 모델 제시

명목제조직위원회(장) 등 9명이 참여했다. 명명성을 지양하고 주제의 선명성과 실천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가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나이 계층 지위를 떠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젊은 불교광장이 되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이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이다.

새벽까지 토론 열기

왜 깨달아야 하는가 이날 토론에서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우리는 왜 깨달고 싶어하는가, 정말로 깨달고 싶은가, 우리가 깨달을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깨달음에 가까워지는가 등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치열하게 오갔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대체로 현실을 떠난 깨달음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통일된, 현실에 있는, 살아있는 깨달음의 의미를 찾고 싶어했다. 질문과 답변들은 상구보리→하화중생이 아닌 반대방향에서 즉, '현실'을 진지하게 보는 눈에서 출발했다. 도법스님은 '왜 깨달아야 하는가'란 문제 대해 '깨달음을 통해서만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유일한 희망

이에 대해 김준호(부산대 강사)씨는 이 물음에 앞서 "먼저 '깨닫고 싶은가'를 물어 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깨닫고 싶다'는 생각이 구체화되는 삶의 현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성스님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유는 인드라망의 세계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하고 "사람과 사람, 인간과

무엇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허우성(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무아와 오온개공의 깨침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올 무사(無私)한 봉사를 목표로 삼지 않고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라고 묻는 것은 질문 행위 자체가 이기성과 불완전성이 내포되어 있다"며, 그렇게 묻기 전에 '무사(無私)한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갖자고 주장했다.

천주교 신자인 이병철(죽색연합 공동대표)씨는 "깨달음을 향한 삶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며, "거룩한 존재의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란 논리를 폈다.

"사회문제 불교적 대안 찾기"

인터뷰 화엄광장 정태숙 기획단장



"화엄광장은 분열과 대립, 경쟁과 승리, 소유와 독점의 사고와 논리로 피 흘려온 과거를 청산하고 공존과 협력, 해원과 화해, 통일과 균형, 공유와 평등의 논리로 자타가 인시에 성불하는 이상과 가치 실현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몸짓입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이자 화엄광장 기획단장인 정태숙(전 전교조위원장)씨는 "그간 수행법이나 정화운동 등 불교계 내부의 문제를 다룬 토론회는

의 건강한 삶을 모색하는 화엄광장은 생명공동체, 생태적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이론적 토대이자 대화의 문이라고 강조했다.

'삶의 지향성, 발원의 구체성'을 목표로 두 달에 한번씩 16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화엄광장의 주제에는 ▲삶과 수행(몸·마음 다루기, 수행결사, 21세기 중생주의자들, 도농공동체운동, 사찰공동체운동) ▲대안문화(대안교육, 곡선의 문화, 예코페미니즘, 계율과 사회윤리) ▲환경과 생명(업사상과 유전자조작, 생물지역주의와 생물다양성, 생태사찰 및 생태마을)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망라된다.

목탁소리

오종욱 (취재부 기자)

호진 스님의 사직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교수라는 직함도 깨달음을 좇는 수행자에게 버려야 할 집인 모양이다. 지난 5일 동국대 기획인사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호진(동국대 경제경영학과, 불교학과 교수) 스님의 결단은 이 같은 생각을 들게 한다. 더욱이 2001년 교수 임용 문제로 동국대에서 적잖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결국 동국학원 이사회가 '2001년 불교학과 4개 부분의 임용을 보류한다'는 사상초유의 결정이 있었던 탓이어서 스님의 사퇴 의사는 교계 안팎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남들은 못 되어서 안답인데,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88년부터 줄곧 지켜왔던 강단을 정년까지 5년을 남긴 상태에서, 스님은 왜 홀연히 자리를 박차고 떠나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스님이 지인들에게 전한 평소 말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88년 동국대 강단에 설 때만 해도 빈자리가 많

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 사람들이 꽂차 있어, 후학들이 학문의 세계를 펼칠 공간이 없다.'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시간과 돈을 들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그 후에도 교수로 임용되는 것도 순탄치 않다. 더욱이 불교학 전공자들의 문은 동국대로 한정될 만큼 좁을 뿐 아니라 보통 교수들이 한 번 임용되면 정년까지 30여 년 간을 재직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불교학 박사들은 강사로 전전할 수밖에 없다. 즉 호진 스님은 후학들에게 삶의 길을 터주고 싶었던 것이다. 스님의 거취는 28일경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현재 스님의 지인들은 "그 결심을 장하지만, 초기불교에 대한 스님의 연구 업적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학 양성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냐"며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후학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는 스님의 결심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호진 스님은 퇴직 후 경주 기림사 경내에 머물며, 수행과 집필에 몰두할 계획이다.

고 언

1998년 2월 3일 당시 선암사에서 발생한 불상사를 기화로 태고종 총무원 현판식을 선암사 일주문에 걸면서 거창하게 총무원 입주식을 거행하였으나, 기존에 서울 소재 두 곳 사찰에 태고종 총무원 현판이 걸려 있었고(지금도 있음) 실제 종단 사무집행을 서울 소재 태고사에서 관장하고 있음에도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절차법을 무시하고 선암사를 태고종 총무원 직할사찰로 정하고 선암사 운영위원장인 이름으로 41명을 임명하고 총무원장 홍모 스님이 당연직인 직할사찰 주지직을 겸직 역임하다 2000. 11월에 태고종 총무원 임기 만료로 총무원장 선거인단(태고종 중앙총회의원)의 선거결과 송모스님이 선출되었으나 소납이 보건대 현대불교(12. 13일자 제 298호 광고란)지에 게재된 청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대종단의 총무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입후보자의 결격사유를 간과한 결과로 인해 전 종도에게 누를 끼친 책임을 이번 선거인단 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고 새로이 구성된 총무원 집행부가 공고한 선암사 주지 선출(12. 15일)건을 보고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바 그 지적내용은

- 1. 위의 적시한바 대로 선암사가 태고종 총무원 직할사찰이라면 선암사 주지는 선출된 총무원장 송모스님이 당연직인바 따로 선출할 근거 없다 할 것이며,
2. 선암사 주지를 새로이 선출한다면 원래의 태고총림 선암사(본사 중심제)로 환원되었음을 전제한 것인바 그렇다면 주지선출은 1,500년 선암사 전통대로 선암사 재적승려대회에서 행해져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지도 아니한(직할사찰이 아니므로) 선암사 운영위원(41명)단에서 선출(12. 15)하였고
3. 위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않은 방법으로 선출된 주지 정모 스님은 1994. 당시 "석"모라 성까지 개성하고 선암사 주지로(당초 잘못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재직 중 여러 불미스런 일로 본사 재적승의 탄핵으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그 직에서 해임되었기에 참회하고 또 참회해도 다하지 못할 것임에도 주지직에 연연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글 선출하였으니 이로 인해 발생할 앞으로의 사태는 전적으로 태고총무원 집행부의 책임임을 지적해 둡니다.

불기 2545. 1.

조계산 선암사 재적승 혜강 합장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통간격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불제대원(고추전구, 인지전구(순장종), 종류 : 3W, 5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할리엔트기 6(특 할리엔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100%

불제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호초파인남 청사 각종 연등용(사발, 방울 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정품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들에 적합합니다. (간접시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 582-6235~6 무료전화 (080) 5826-236 평생전화 (0502) 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 583-4023 FAX (032) 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 (031) 986-0277~8